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부속기관: 꿀벌유치원 857-8545 /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백 승 준	시몬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봉 목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전 교 수 녀	윤 옥 주	율리아 (원장)
	이 민 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최 상 순	수산나 (유·초등부)
꿀벌유치원	장 종 수	마리나
요셉어린이집	박 화 자	글라라
총 회 장	최 석 준	마르코 010-5715-0392
연령회 회장	우 성 식	바오로 010-2899-4654

★ 축 첫영성체 ★



6월 2일(일) 유초등부 어린이 9명과 6월16일(일) 중고등부 학생, 청년 6명이 첫영성체를 합니다.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 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성체분배자회	5월 26일(일)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위령봉사회	6월 02일(일) 11:40	강 당
M.E.	6월 02일(일) 11:50	6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6월 07일(금) 20:00	1교실
성모성심회	6월 08일(토) 17:30	강 당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6월 01일(토)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견진성사 안내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집전자 :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4월 전입)

- 일 시: 5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 장 소: 1교실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 역 반	성 명	세례명	이전 본당
06구역6반	이상노	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독산동
11구역3반	성정숙	헤레나	서울대교구/서초동
15구역4반	조영숙	비비안나	서울대교구/가락2동
15구역4반	조영희	아네스	"
22구역3반	김유주	소화데레사	대전교구/천안쌍용동

◎ 성모의 밤 행사 안내

- 일 시 : 5월 30일(목) 오후7시30분, 성전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알 림

-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6월3일(월) 10:30
- 6월 성시간 및 성체강복은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관계로 없습니다.

◎ 다음 주일(6/02)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구역	청 소	10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5월 15일 ~ 21일)

• 교 무 금		3,588,000원
• 주일헌금		5,105,000원
손상순 5만원 박인규 5만원 박인수 5만원		
• 감사헌금	이남식30만원 오성환10만원 국수잔치17구역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5/26	권태희	오성환	도현만	장익근	정연희
6/02	황원선	오성환	도현만	안상록	홍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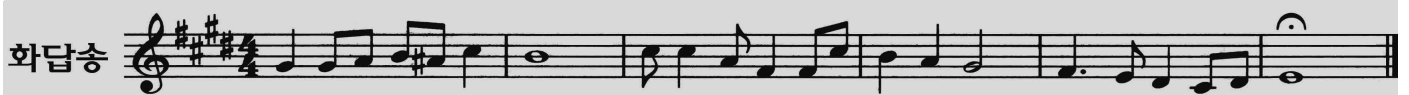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5/26	박승환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이계명 하재민
6/02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6월 생활환경 캠페인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81 ♪ 예물준비 : 215, 512 ♪ 영성체 : 83, 188 ♪ 파견 : 82



행복하야라 주님이당신 소유로 뽐으신백성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95.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존을 부인하며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뉴질랜드 주교들이,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가난한 나라와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훔치면서까지 자원을 소비하고 있을” 때,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Ⅶ. 예수님의 눈길

96.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성경의 신앙을 받아들이시면서 근본적인 사실을 강조 하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아버지로서 맺으신 관계를 깨달으라고 권유하시면, 하느님 보시기 에는 그들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동적인 온유함으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97.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실 수 있었 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자연과 관계를 이루시면서 큰 사랑과 경탄으로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사시던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다가 잠시 머무시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음미하시고는,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당신 제자들에게 권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된다.”